

울진군 금강송 산지농업, 전시로 만난다

국립농업박물관서 '금강송 곁에' 개최

울진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획전시 '금강송 곁에'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에 담긴 숲·농업·사람의 공생과 순환의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유산이 과거의 보존 대상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자산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박물관 전시동 복도 공간을 활용한 오픈형 구조로 구성돼 관람객들이 이동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 특히, 바위가 달린 모퉁형 전시 구조물을 활용해 '찾아가는 박물관' 형태의 유연한 전시 환경을 구현하고, 금강송 산지농업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간 연출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다.

전시 내용은 크게 '농업', '공생', '순환'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의 의미와 함께, 2025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국제적 가치를 소개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이 오랜 시간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전통 농업 시스템을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한 국제적 제도다.

'농업' 주제에서는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형성과 역사적 배경을 조명한다. 금강송은 조선시대 궁궐과 관청 건축에 사용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 중요한 자원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미래 가치형 농업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연과 인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산지농업의 축적된 시간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공생' 주제에서는 금강송 숲



▲금강송곁에 포스터

과 송이버섯의 관계를 중심으로 산지농업 생태계를 소개한다. 송이버섯은 금강송과 공생 관계를 이루며 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위적인 재배가 아닌 숲의 건강한 관리로 생산이 이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울진 송이버섯 관련 기록 자료를 통해 역사적 가치도 함께 조명한다.

마지막 '순환' 주제에서는 숲을 기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농업과 임업, 지역 주민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순환하

는 구조를 설명하며 숲을 보호하는 일이 곧 지역의 생계와 농업 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농업유산의 본질을 보여준다. 아울러 과거 보부상 활동과 현재 농업유산을 지켜가는 지역 주민 단체의 모습도 함께 소개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이 지닌 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기회"라며 "농업유산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미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울진군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형성한 독특한 산지 농업 시스템으로,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전남농기원, 맥류 붉은곰팡이병 비상

배수 관리·약제 예방·공동방제 강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최근 개화기를 맞은 맥류(밀·보리) 재배지에서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붉은곰팡이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 방제를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은 이삭이 패는 시기부터 여름은 시기까지 온난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급증하는 병해로, 연속적인 강우와 높은 습도에서 빠르게 확산된다. 감염되면 이삭의 낱알이 갈색으로 변하고 충실도가 떨어져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로 이어지며, 심할 경우 수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배수로를 정비해 포장 내 과습을 방지하고 습도를 낮춰야 하며, 출수기부터 개화 초기에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

예방 중심의 약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 공동방제를 통해 방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붉은곰팡이병은 감염 이후 방제 효과가 거의 없어 사전 예방이 핵심이다. 등록 약제를 활용해 1차 방제 후 약 10일 간격으로 2차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제시됐다.

한편 전남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작물 안전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비 6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생육 모니터링, 병해충 예찰, 기상제해 SMS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이 기자
midal0210@naver.com

경북도, 분홍빛 오미자 '핑크미소' 농가 보급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오미자 상품종 '핑크미소'를 개발해 품종보호 출원과 2년간의 재배 심사를 완료하고, 2026년 최종 품종 등록을 마쳐 농가 보급에 본격 나선다.

오미자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생하는 대표적 약용작물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오미자에 풍부 리그난(Lignan) 성분은 간 기능 강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오미자 추출물이 지방세포 분화 억제와 피부미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이나 치료제가 개발 시 오미자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화약용작물연구소는 2014년부터 오미자 품종 육성을 시작해 그동안의 연구 노력의 결실로 '썬레드'와 '한오미' 2품종을 개발 보

급했으며, 올해 '핑크미소'를 최종 등록했다.

'핑크미소'는 기존 붉은색 오미자와 차별화된 분홍색 품종으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알려진 고미신 N(Gomisin N)이 함량 1.5배 높고 수량성도 기존 오미자보다 1.7배 높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미자를 품종으로 재배할 경우 기존에 3-4회 이상 나누어 수확하던 것을 일시에 수확할 수 있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

며, 품질과 기능성 성분이 균일해 식품이나 약용 원료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오미자 상품종은 생산성이 높고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균일하게 함유하고 있어 오미자 농가, 산업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며, "앞으로 식품소재나 치료제로 산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우수 약용작물 품종육성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핑크미소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배꽃 인공수분 일손돕기 지원

농가의 인력난 해소 위해 힘보태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배꽃 개화기를 맞아 인공수분 일손돕기 봉사를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환읍과 직산읍 일

원 농가 3곳에 방문해 인공수분 작업을 진행하며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탤다.

배꽃은 개화 시기가 짧고, 기상

여건에 따라 결실률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센터는 적기에 참여해 현장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작업을 통해 배 재배 기술과 생육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

장 지원과 기술지도 병행해 일손 부족 등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임진혁 농촌지도사는 "배꽃 인공수분은 과실 품질과 수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일손돕기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영광군, 올해 첫 모내기로 풍년농사 시작 알렸다

풍년농사 위한 영농 준비 총력

영광군은 지난 4월 18일 근남면 용암리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첫 모내는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늦게 진행됐다. 본격적인 벼 이앙은 5월 중순 1모작 벼를 시작으로 6월 중순

이모작 벼까지 이어지며, 관내 약 9,000ha 논에서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영광군에서 약 60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벼 '조명1호'는 4월 하순에 이앙해 9월 초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이 품종은 태풍 등 기상재해

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벼 도복으로 인한 수확비용 증가와 수량 감소, 미질 저하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추석 전 햅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농번기 노동력 분산에도 효과가 있다.

현장을 방문한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정재욱 소장은 "지난해 깨씨무늬병 다발성과 등숙기 일

조량 부족, 야간 고온의 영향으로 양분 축적이 저하되면서 종자 충실도가 떨어져 올해 정부 보급종과 자가재종 종자의 발아율이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아율 저하에 대비한 사전 무료검사와 현장 기술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육묘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풍년농사를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이 기자
midal0210@naver.com

이천시, 과수 돌발해충 적기 방제 위한 약제 공급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에 발생하는 돌발 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한 약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돌발 해충은 이동성과 번식력이 뛰어나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나무의 즙액을 흡즙하여 생육을 나쁘게 하

고 과실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대표적인 돌발 해충으로는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이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복숭아, 배, 사과, 포도 등 면적 792ha, 1,429호의 농가에 적용 약제를 공급한다.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해충의 활동성이 낮고 약제 내성이 약한 어린 단계인 약충기(5월 하순 ~ 6월 상순)에 알맞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전까지 약제 공급을 완료하고 올바른 방제 방법 안내를 통해 돌발 해충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00년을 지나, 100년의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여 더욱 도약하겠습니다.

- 친환경 안심축산업 실현
-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 축산환경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
- 데이터 기반 축산환경 개선

축산환경관리원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